



## ‘조선 후기 문집 책판’ 3점 美서 ‘귀환’

조선 후기 유학자와 항일 의병장의 문집 책판이 미국으로 건너간 지 50여 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척암선생문집’ ‘송자대전’ ‘변암집’ 책판 3점을 기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책판은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나무판에 글씨를 뒤집어 새긴 나무 판이다.

조선시대에는 주요 유학자의 문집이나 저작물을 제작할 때 책판을 썼는데 현재 718종 6만4226장이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책판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이 일종의 ‘기념품’으로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가 보관한 유물이다.

1917년에 판각(板刻)나못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척암선생문집’ 책판은 척암 김도화(1825~1912) 선생의 문집을 찍은 책판이다.

김도화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직후 유생들이 일으킨 을미의병 당시 경북 안동 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척암선생문집’ 책판은 현재 19점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재단은 2019년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독일 경매에서 1점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번 책판은 1970년대 초 미국 연방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 한국지부에서 일했던 앨런 고든(1933~2011) 씨가 한국의 골동품상으로부터 사들인 뒤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고든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이 보관하다 지난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고, 협의를

1970년대 반출됐다 기증 받아

도미 반세기 만에 고국 품으로

항일 의병장 김도화 책판 포함

송시열·채제공 문집 찍은 유산

국립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일했던 미국인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유물 3점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기증받았다.

② 척암 김도화 선생의 ‘문집’ 책판 ③ 변암 체제공의 ‘변암집’ 책판 ④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책판.

국기유산청·국기유산포털



①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일했던 미국인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유물 3점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기증받았다.

② 척암 김도화 선생의 ‘문집’ 책판 ③ 변암 체제공의 ‘변암집’ 책판 ④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책판.

국기유산청·국기유산포털

거쳐 재단 미국사무소로 넘어오게 됐다.

‘송자대전’ 책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1607~1689)의 문집과 연보 등을 모아 만든 것으로, 1926년 판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집은 1787년 처음 간행됐으나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책판 전체가 소실됐다. 이후 1926년 후손들과 유림이 책판을 다시 새겨 복각했다고 전한다. 복각한 책판 1만

1023점은 현재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고든 씨는 ‘척암선생문집’ 책판과 함께 ‘송자대전’ 책판을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갔고 여동생인 엘리시아 고든에게 ‘송자대전’ 책판을 선물했다고 한다.

조선 영조(재위 1724~1776)와 정조(재위 1776~1800) 시기 국정을 이끈 핵심 인물인 변암 체제공(1720~1799)의 문집 ‘변암집’ 책판도 돌아오게 됐다.

‘변암집’ 책판 역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유산이다. 전체 1159점 가운데 358점만 남아 있으며 ‘척암선생문집’ 책판과 함께 세계 기록유산에 일괄 등재됐다.

‘변암집’ 책판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이 한국의 어느 골동품상에서 산 뒤, 미국으로 가져와 재미교포 김은혜 씨 가족에게 선물한 것이다.

김은혜 씨는 이 사실을 파악한 재단의 제안을 받고 기증을 결정했다고 한다.

기증받은 책판은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 3점 모두 손잡이인 마구리에는 금속 장식을 덧대었고, 뒷부분에는 고리를 달아 벽에 걸 수 있도록 했다. 전통문화 상품처럼 꾸민 형태다. 먹물 입혀 인쇄하는 글씨 위에 금색과 은색을 덧칠한 부분도 눈에 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난 혹은 분실된 책판 중 일부가 기념품으로 둔갑한 뒤 외국인에게 판매되고 해외로 반출된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비슷한 사례가 더 없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대한민국 최초 대사관’임을 알리는 기념 동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 영사부 건물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한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수립 이후 미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각종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기틀을 마련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장면(1899~1966) 초대 대사부터 김동조(1918~2004) 대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주미대사가 집무한 공간이자 대한민국 외교 공관 중 가장 오래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유산청이 나라 밖 문화유산에 기념 동판을 부착하는 건 2021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023년 주영대한제국공사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기념행사에는 허빈 국가유산청장,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고궁博, 내달부터 문 닫는 날 늘린다

月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야간 관람도 월 1회로 축소

조선 왕실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월 1회 박물관 문을 닫는다.

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확대 기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박물관 휴관 및 야간 관람 변경 계획을 보고했다.

정 관장은 “3월부터는 월 1회 마지막(주) 월요일에 정기 휴관할 계획”이라며 “매주 수요일에 하던 야간 관람도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2021년부터 ‘휴관 없는 박물관’을 내세우며 1월1일과 설날·추석 명절 당일에만 문을 닫아왔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운영하고 있다.

정 관장은 “휴관 없는 박물관을 유지해오다 보니 (기기, 시설 관리 등에) 부하가 걸리고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관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새벽 박물관에서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설비가 불에 타고, 인근 열린 수장고 등으로 연기가 유입돼 임시 휴관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과 박물관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기계실에 있던 가습기가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 후 자체 소멸해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직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

원들이 모두 출근해 국보, 보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주요 유물을 옮기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 관장은 “박물관 건물은 1979년 중앙청 후생관으로 지어진 터라 공조기를 비롯해 각종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노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시설 및 안전 관련) 예산 9억 원을 확보했으나 유물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 시설에 대한 전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최근 주요 박물관은 관람 시간 및 휴관일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열린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3월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오전 10시~오후 6시보다 개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긴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월1일과 설·추석 당일에 더해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휴관일을 종전보다 이틀 더 늘려 총 7일 쉬기로 했다.

국립박물관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주요 박물관의 휴관일 도입과 관람 시간 변경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글·사진·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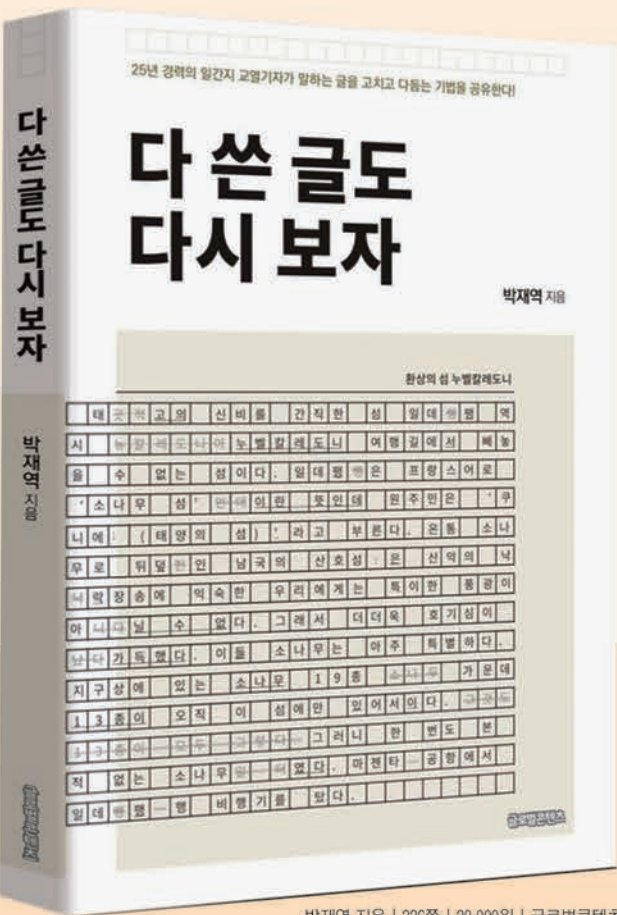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쓰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덕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